

第47回 發明教室

1月 9日, 成功事例 등 發表

- … 本會는 지난 1月 9日 特許廳 研修室에서 第47回 發明教室을 開催했다. ……○
- … 每月 둘째 土曜日 午後 1시에 開催되는 發明教室은 이달에도 200여명이 參席…○
- …하여 盛황을 이루었다. 이날 發明教室에서는 韓國電力公社 洪允和씨와 가정주…○
- …부 發明人 姜英姬여사의 成功事例 發表에 이어 洪載日辨理士의 「工業所有權制…○
- …度」에 대한 강의가 있었다. ……○
- … 두 發明人的 成功事例를 간주려 紹介한다. ……○ <朴鎔碩 記>…○

生活周邊이 發明의 産室

가정주부 發明人 姜英姬여사

發明人 姜英姬여사. 그녀는 그저 평범한 가정주부이다. 아이들이 건강하고 예쁘게 자라고, 남편이 하는 일이 잘되기를 바라는 정도의 소박한 꿈을 가진 그런 평범한 주부. 그녀가 發明으로 제네바國際發明展 金銀賞 수상에 이어 大統領表彰을 받았다.

그렇다고 發明을 위한 研究室이 있는 것도 아니다. 姜여사의 研究室은 그녀의 生活周邊이다.

『특별한 눈으로 저를 보지 마세요. 전 평범한 주부일 따름입니다. 단지 生活속에서 부딪치는 불편함을 해소하려는 努力으로 남들이 다 느끼는 疑問점을 한치 더 파고 들다보니 發明이라는 것을 하게 되었지요.』

發明人이라는 타이틀은 아직 자신에게 어울리지 않는다며 겸손해하는 姜여사의 發明品은 「편리한 계수형 출자」의 수중.

『계수형 출자를 發明하게 된 것은 모두 딸아이 덕분이지요.』

6年前 姜여사의 큰딸이 國民學校 2학년때의 일이다. 학교에서 자의 눈금을 읽는 법을 막 배운 姜여사의 딸은 건축 스피커의 변의 길이를 재려다 쇠줄자를 망가뜨렸다. 쇠줄자를 억지로 구부려가면서 모서리를 재다가 그렇게 된 것이다.

『처음에는 왜 자를 망가뜨렸느냐며 야단을 쳤어요. 그리고는 그일을 까맣게 잊어버렸지요. 몇달후 우연히 건축을 틀다 건축에 달린 조그만 카운터(회전 계수기)를 보고 이것을 이용하면 편리한 출자를 만들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펄쩍 머리를 스치더군요.』

姜여사는 난생 처음 세운상가의 부속품 가게에 갔다. 카운터와 아크릴판을 사들고 집으로 돌아온 그녀는 방안에다 그것들을 널부러놓고 궁리를 하기 시작했다. 붙였다 떼었다 하기를 수백번. 드디어 「새로운 계수형 출자」가 發明되었다.

이 發明으로 姜여사는 일약 세계적인 發明人으로 떠올랐다.

姜여사의 發明品 第2號는 「자기



<姜 英 姬 여 사>

발전식 죽은화」.

신발의 굽에 자석과 전기발전장치를 부착시켜 길을 걸으면 自動적으로 신발이 따뜻해진다. 이 發明의 동기도 아주 작은 의문에서 비롯되었다.

第3號 發明品은 「개량형 빨래」.

개량형 켄에 개량형 빨래를 쫓은 아주 간단한 것으로 거동이 불편한 중환자들이나 어린아이들에게 물약을 먹일때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 이밖에도 수건의 發明品이 있는 姜여사는 요즘도 發明에 맘을 훌리고 있다. <○>